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선정

군산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억원 사업비 지원

군산시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2019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R&D 연구개발기술과 농특산물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는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을 통해 쌀과 보리, 밀을 융복합한 군산미식(味食)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시군을 선정했으며 군산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특화된 쌀, 보리의 차별

성과 기 확보된 가공시설 기반을 토대로 20~30대 밀레니엄 세대 소비층을 겨냥한 '미식 산업화'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인정받아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 등 특화기반을 갖춘 친환경 쌀보리와 더불어, 새롭게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맥주보리와 수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밀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미

맥류 융복합 미식산업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시가 추진할 짬뽕 특화거리에 군산 쌀, 보리, 밀을 원료로 한 면(국수)류를 개발·보급하여 차별화된 군산의 맛과 멋을 보여줄 것"이라며 "동네빵집, 음식점 등 지역소상공인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미식산업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근대 골목길 투어 개최

26~28일까지 3일간 시간여행마을서... 체험 프로그램 다채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군산시는 가을여행 주간을 맞아 지역을 체험하는 근대 골목길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문체부, 전북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 근대 골목길 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근대역사의 건축물, 박물관, 전시관, 영화촬영 명소를 찾아가 체험하는 골목길 투어와 함께 관광지킴이 퀴즈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근대건축관 옆 특설무대에서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초원사자관 일원에서는 군산에서 일어난 호남최초 항일운동인 3.5만세운동을 소재로 관광객과 함께 연출하고 참여하는 골목길 플래시몹이 진행되며 근대거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옛 장터를 재현한 '추억의 장터 사람들', 집배를 바꾸며 교훈, 덕담을 나누는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군산민이 가지고 있는 근대역사 콘텐츠를 알리고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돌입

지난 18일까지 2018 제99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서 대회를 마무리한 익산시가 이번에는 이어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을 3일 앞두고 22일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앞서 전국체전을 준

비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강점 확충 방안 등 20개 주요 부서의 준비상황에 대한 마무리 사항과 대회기간까지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로 진행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서 전국체전이 역대 최고의 규모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낸 만큼 감정은 살려서 확충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조속히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시에 머물게 될 장애인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따뜻하고 행복한 체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방문객이 60만 명에 달하는 천만송이 국화 축제와도 맞물려 개최되므로 익산시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식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8시에는 공식행사가, 18시 35분부터 마마무, 산이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폐회식은 29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프로그램 호응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 정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힐링캠프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심신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여 감성 함양 및 마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통해 건전한 보육교사로 성장하는데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어 3회의 힐링캠프와 2회의 문화체험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힐링캠프 프로그램은 총 3회로 진행되어 꽃을 활용한 원예체험, 꽃차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꽃차체험, 색깔을 통한 컬러테라피 체험 등 직접 꽃과 차, 아로마오일 등을 활용한 인문체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기조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직원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환경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시장과 톡톡' 추진

군산시는 형식을 탈피한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과 시장 현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이라는 시민대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장과의 톡톡'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오는 26일 첫 시민대화가 시작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대화에 단 1명의 시민이 참석하더라도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시장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시민대화와 더불어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진'을 통해 주민들의 염원과 요구를 현장에서 느끼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곳을 체험함으로써 시민과의 직접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국주얼리협동조합, 홍보영상 제작지원 사업 선정

익산시가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 최근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8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大賞) 홍보영상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 홍보영상을 통한 조합의 홍보·판로 확대와 지역 공동 브랜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홍보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전북 우수 협동조합사례를 발굴·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가치, 사업성, 미래비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지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에게 비즈니스모델 제공, 홍보·마케팅·판로 구축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협동조합 대상은 11월 27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상장과 협동조합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비 전액을 지원한다.

정은희 한국주얼리협동조합장은 "지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조합원 및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조합원 공동 발전과 더불어 익산 주얼리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콜로키엄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는 오는 24일 순천대 인문학부 강성호 교수를 초청해 제16차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엄에서 강성호 교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생태주의의 역사 종말론과 유토피아론을 마르크스-엔겔스의 '경제철학수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비롯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데이비드 크리스찬의 '인류세론'과 '빅 히스토리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강성호 교수는 고려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자유베

를린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활동을 했으며, 한국독일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서로 저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와 역사 '역사론'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에 대한 비판과 반 비판을 넘어서', '역사연구방법론과 거시사' 등이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자 하지원